



사회과 내용 지식에 대한 초등 예비교사의 어려움 양상 분석* - 경제 개념을 중심으로 -

박윤경¹, 김재근², 김지훈³, 심소현⁴

《 요 약 》

이 연구는 초등 예비교사가 사회과 내용 지식을 이해할 때 겪는 어려움의 양상과 맥락을 분석하고 사회과 교육과정 문해력 함양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수렴적 병렬 혼합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2개 교육대학교 학생들에 대한 설문 조사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초등 사회과 경제 영역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주요 경제 개념 이해의 어려움은 국제수지, 합리적 선택, 희소성, 비교우위, 기업가 정신, 국내총생산, 시장 경제 체제 개념에서 두드러졌으며, 초등 예비교사가 경험한 어려움의 양상은 ‘개념의 의미 인지의 어려움’, ‘개념의 의미 설명의 어려움’, ‘개념의 사례 제시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내용 지식 이해의 어려움은 크게 사회과 내용 지식의 특성과 같은 교과 맥락과 형식적·비형식적 학습 경험의 부족이라는 학습자 맥락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초등교사 양성과정에서 교과 내용 지식 학습의 강화, 사회과 교육과정 개념 간 계열화 경험, 일상생활 연계 경험을 통한 자신감 고양, 예비교사와 고등교육 학습자라는 이중의 정체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사회과 내용 지식, 경제 개념, 교육과정 문해력, 초등 예비교사, 혼합 연구

* 이 논문은 2024학년도 청주교육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CJE2024D024)에 의하여 연구된 것임.

1. 청주교육대학교 교수, realpyk1@cje.ac.kr (주저자)
2. 대구교육대학교 조교수, jaegun@dnue.ac.kr (공동저자)
3. 대전은어송초등학교 교사, kjh4469@snu.ac.kr (교신저자)
4. 창동중학교 교사, hongryun91@snu.ac.kr (공동저자)

I. 서론

최근 학계와 현장에서는 교사 전문성의 요체로 교육과정 문해력을 강조하고 있다(박윤경, 김미혜, 김병수, 2017). 일반적으로 교육과정 문해력이란 교육과정을 읽고 쓰는 능력으로 정의되며, 교육과정 문서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역량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역량을 포괄적으로 이른다(김병수, 이현명, 2016; 박윤경, 김미혜, 장지은, 2021; 박윤경 외, 2017; 정광순, 2020).

기존 교사 전문성 담론이 교사의 수업 전문성에 초점을 두었다면 교육과정 문해력은 단순한 수업 실행을 넘어 교사의 교육과정 전문성을 강조한다. 이는 교사 지식의 의미에 대한 재고찰을 요구한다. 수업 전문성 담론에서는 내용 지식과 교수법적 지식이 통합된 교수 내용 지식(PCK)을 교사가 갖추어야 할 지식의 핵심으로 강조한다. 이는 교사 지식의 최종 지향점을 제시하는 것일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교수 내용 지식의 원천(Shulman, 1986, 1987)이 되는 교과 내용 지식의 중요성을 간과하게 할 우려가 있다. 특히 교과 교육과정에 반영된 내용 지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높은 수준의 교육과정 문해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박윤경 외, 2017)는 점에서 교과 내용 지식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요청된다.

교과 내용 지식은 하나의 단편적인 지식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학문의 구조 내에서 특정 주제 및 개념이 가지는 위치에 대한 이해까지 포함한다(Shulman, 1986, 1987). 여러 학문 영역의 지식을 포괄하며 개념 학습 비중이 높은 사회과의 경우, 교사가 수업에서 개념의 사례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학습자 수준에 맞게 지식을 변환하는 과정에서 교과 내용 지식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사회과에서 교사의 전문성 및 교과 역량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교수 내용 지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강대현, 2008; 설규주, 2009; 조대훈, 2015; 최희정, 2012). 이에 비해 교사의 사회과 내용 지식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초등 예비교사들이 사회과 내용 지식의 과다 및 개념 이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정 개념에 대한 다양한 오개념을 갖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설규주, 2010; 이경한, 김서윤, 2019). 특히, 여러 교과목을 가르치는 초등 예비교사가 정치, 경제, 법, 사회문화 등 성격이 상이한 여러 학문 영역을 포괄하는 일반사회 영역의 교과 내용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더욱 어려울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초등 예비교사가 사회과 내용 지식을 이해할 때 겪는 어려움의 양상과 맥락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회과 일반사회 영역 중 경제 영역의 내용 지식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초등교사 및 예비교사들은 사회과의 다른 영역에 비해 특히 경제 영역의 내용 지식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태환, 김지훈, 2025; 박윤경 외, 2024; 윤상균, 2013). 이는 초등교사 및 초등 예비교사의 경제이

해력/금융이해력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연구와는 상반되는 현상이다(김동진, 김지훈, 2021; 한진수, 2002, 2021). 따라서 초등교사와 예비교사들이 다른 영역에 비해 어려움을 느끼고, 이해력과 개념에 대한 자기 인식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제 영역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초등 예비교사들이 사회과 내용 지식에 대해 갖는 어려움의 양상과 그 맥락에 대한 지식을 더 풍부하게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 예비교사가 어려워하는 사회과 (경제 영역의) 내용 지식은 무엇인가?, 둘째, 초등 예비교사의 사회과 내용 지식에 대한 어려움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가?, 셋째, 초등 예비교사가 사회과 내용 지식 이해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맥락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초등교사 양성과정에서 사회과 교육과정 문해력 함양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교사의 지식과 사회과 내용 지식

일반적으로 수업 전문성을 지닌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수업 전문성이 뛰어난 교사의 교수 행위에 담겨진 고유한 지식의 형태를 밝히는 과정이 필요하다. 술만은 이 문제에 주목하여 교사가 갖추어야 할 전문적 지식으로 교수 내용 지식(PCK;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을 처음으로 제안하였다(박상준, 2018). 교수 내용 지식은 ‘교수학 지식’, ‘내용 지식’을 통합하여, 학생이 교과 내용을 잘 이해하도록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것과 관련된 지식을 의미한다(강대현, 2021; 박상준, 2018).

교사가 갖는 교수 내용 지식은 두 차례의 교수학적 변환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구체적으로 내용 지식에서 교과 내용 지식으로의 변환, 교과 내용 지식에서 교수 내용 지식으로 변환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된다(한광웅, 2012). 즉, 교사가 보유한 학문 내용 지식 중 일부는 교과 내용 지식으로 변환되고, 교과 내용 지식의 일부는 다른 지식(교육학 지식, 학습자에 대한 지식, 상황 지식 등)과 통합되어 교수 내용 지식으로 변환된다. 이러한 점에서 술만과 동료들은 이후의 연구에서 교수 내용 지식이 별도로 존재하는 지식이라기보다는 다른 형태의 지식들이 통합·변형된 결과라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강대현, 2021).

교수 내용 지식이 갖는 통합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교사의 수업 전문성 제고를 위해 최종적

으로 요구되는 교사 지식은 교수 내용 지식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내용 지식과 교과 내용 지식이 교수 내용 지식으로 변환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교수 내용 지식의 원천으로 작용하는 다른 형태의 지식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최근 강조되는 교육과정 문해력은 수업 전문성을 넘어 교사의 교육과정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의 읽기와 쓰기 역량을 모두 요구한다는 점에서 교육과정 문해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지식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교사 지식의 다양한 형태 중에서 교과 내용 지식에 주목하였다. 교과 내용 지식은 교사가 단순히 사실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학문의 구조 내에서 특정 주제 및 개념이 가지는 위치에 대한 이해까지를 포함한다(Shulman, 1986, 1987). 교수 내용 지식은 수업처럼 다른 사람을 이해시키는 표현 방식에서 나타난다는 점에서 수업 중에 교사가 제시하는 예화, 사례, 설명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Shulman, 1986). 이 점에서 교수 내용 지식의 형성에는 학교 현장에서의 경험을 통해 형성된 실천적 지식이 중요하게 관여할 수 있다. 반면, 교과 내용 지식은 초등교원 양성과정을 통해 교수 내용 지식으로의 변환에 도움을 줄 수준으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예비교사는 교수 내용 지식의 근간인 교과 내용 지식을 초등교원 양성과정에서 충분히 터득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실제 초등 예비교사들이 교과 내용 지식 학습에 적합한 기회를 제공받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 강좌가 교과 내용 지식 습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설규주, 2010). 결국, 초등교원 양성과정에서 교과 내용 지식에 대한 학습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은 가운데, 초등 예비교사들이 사회과 내용 지식의 습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사회과에서 교사 지식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교사의 수업이나 교육과정 재구성 사례에서 나타나는 교수 내용 지식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두었다(강대현, 2008; 설규주, 2009; 조대훈, 2015; 최희정, 2012). 이들 연구는 초·중등 교사들이 보유한 사회과 교수 내용 지식의 형태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사회과 교수 내용 지식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데 비해, 그 원천인 교과 내용 지식에 주목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과정 문해력은 교육과정의 ‘읽기’와 ‘쓰기’ 역량을 모두 요구한다(김병수, 이현명, 2016; 박윤경, 김미혜, 장지은, 2021; 박윤경 외, 2017; 정광순, 2020). 사회과 교육과정 문해력, 특히 ‘읽기’ 역량의 경우, 각 단원별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포함된 학습 내용 요소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박윤경 외, 2024), 예비교사가 가진 교과 내용 지식은 교육과정 읽기 역량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예비교사의 사회과 교육과정 문해력 함양을 위해서는 예비교사들이 사회과 내용 지식 이해에 어떠한 어려움을 갖고 있으

며, 그 어려움이 무엇으로부터 기인하는 지에 대해 면밀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사회과 내용 지식을 이해하는 데 초등 예비교사가 겪는 어려움의 양상과 맥락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초등교사 및 초등 예비교사가 내용 지식 습득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된(김태환, 김지훈, 2025; 박윤경 외, 2024; 윤상균, 2013) 경제 영역의 내용 지식에 중점을 둔다.

2. 초등 예비교사의 경제 영역 교과 내용 지식에 대한 선행 연구

초등 예비교사의 사회과 경제 영역 내용 지식에 중점을 둔 국내 선행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사회과 내용 지식이 대부분 모학문의 이론 및 개념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초등교사 및 초등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수행한 경제이해력 및 금융이해력 조사 연구 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김동진, 김지훈, 2021; 한진수, 2002, 2021).

먼저, 초등교사 239명을 대상으로 경제이해력 시험(Test of Economic Literacy; TEL)을 시행한 한진수(2002)의 연구에 따르면, 초등교사들은 한국, 미국, 영국, 호주의 고등학생들에 비해 높은 수준의 경제이해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다만, 무역, 총수요와 총공급, 재정정책, 통화정책, 환율 등의 개념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의 배경 변인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교사들의 성별이나 대학에서의 경제학 과목 수강에 따른 차이는 없지만, 경제기사 읽기에 따른 차이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제에 대한 흥미가 많을수록 경제이해력 점수가 높았으나 유의도는 낮았다. 이는 경제기사 읽기와 같은 일상적 활동과 연계된 학습이 교과 내용 지식 습득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경제에 대한 흥미가 학습 경험으로 연계되어야 내용 지식의 습득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김동진과 김지훈(2021)의 연구에서는 초등교사 251명을 대상으로 OECD/INFE 도구를 활용하여 금융이해력 조사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 결과, 초등교사의 금융이해력이 일반 국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점이 보고되었다. 특히, 경제·금융교육 연구회 및 수업 경험, 금융교육 연수 경험 등이 있는 교사들이 그렇지 않은 교사들에 비해 금융이해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초등교사의 사회과 내용 지식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교사들의 금융이해력 수준과 관련 변수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금융교육 실행 경험(연구회 및 수업)이 있는 교사들의 금융이해력이 높다는 점은 수업을 전제로 한 수업 설계 및 실행 과정에서 교과 내용 지식을 습득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초등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는 한진수(2021)의 연구가 유일하다. 이 연구에서는

금융이해력(Test of Financial Literacy; TFL) 조사 도구를 활용하여 1개 교육대학교 초등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 결과, 초등 예비교사의 금융이해력은 비교적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득, 소비, 저축 영역에 비해 신용, 투자, 보험 영역에서의 금융이해력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경 변인에 따른 차이를 비교한 결과, 자신이 금융 지식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예비교사의 금융이해력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연구는 금융교육 관련 내용 영역 중 초등 예비교사가 어려움을 느끼는 영역을 밝히고, 관련 변수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자신의 금융 지식 수준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가 실제 금융이해력 수준과 관련이 있다는 점은 교과 내용 지식의 이해와 관련하여 초등 예비교사들의 주관적인 인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상의 연구들은 초등교사 및 초등 예비교사의 전반적인 경제 내용 지식 이해 수준 및 관련 변인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그러나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 지식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으며, 초등 예비교사들이 경제 영역의 내용 지식을 이해하는 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을 갖는지는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앞서 제시한 세 연구에서는 초등교사 및 초등 예비교사의 경제이해력/금융이해력이 일반 국민이나 고등학생들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하지만 초등교사의 79.1%가 경제 수업 진행에서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 2020), 다수 연구에서 초등교사 및 예비교사가 경제 영역의 내용 지식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김태환, 김지훈, 2025; 박윤경 외, 2024; 윤상균, 2013). 예를 들어, 박윤경 외(2024)의 연구에서는 사회 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비교적 교과 전문성이 높은 초등교사들도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제시된 경제 개념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보고되기도 했다.

이상에 비추어 사회과 내용 지식에 대한 초등 예비교사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내용 지식 수준을 측정하는 연구를 넘어 어려움의 다양한 양상과 맥락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때, 초등 예비교사들의 교육과정 문해력과 관련하여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내용 지식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과 내용 지식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도와 주관적인 인식 수준을 모두 조사할 필요가 있다. 한진수(2021)는 금융 지식에 대한 자신감이 높을수록 금융이해력 수준이 높다고 보고하였으며, 일반 대학생의 금융이해력 연구를 수행한 이운호(2018) 역시 바람직한 금융 지식의 습득을 객관적 수준과 주관적 인식(자신감)으로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경제 영역을 중심으로 사회과 내용 지식에 대한 초등 예비교사의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 경제 영역 내용 지식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도와 예비교사가 평가한 주관적인 인식 수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1. 혼합 연구 방법

사회과 내용 지식 이해에 대한 초등 예비교사의 어려움을 분석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혼합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혼합 연구는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를 수집하고 두 가지 형식의 자료를 통합하여 탐구하는 방법이다(Creswell, 2014/2017). 혼합 연구 방법의 유형은 하나의 지배적인 패러다임 안에서 연구를 수행하는지(Paradigm Emphasis Decision), 연구의 수행 순서를 어떻게 선정하는지(Time Order Decision)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며, 연구자의 연구 목적에 맞게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Johnson & Onwuegbuzie, 2004).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혼합 연구 방법 중 수렴적 병렬 혼합 방법을 수행했다. Creswell(2014/2017)에 따르면, 수렴적 병렬 혼합 방법은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를 모두 수집한 후에 각 연구 자료가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는 연구 방법을 의미한다. 수렴적 병렬 혼합 방법에서는 연구자가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를 개별적으로 분석하고, 각 결과를 비교한 후에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이때 일반적으로 양적 표본 집단 가운데 질적 연구 참여자를 선정한다(Creswell, 2014/2017).

이 연구에서는 초등 예비교사의 경제 영역 내용 지식에 대한 객관적 이해도와 주관적인 이해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설문 조사를 수행한 후, 조사 대상 중 포커스 그룹 인터뷰 참여자를 선정하여 경제 영역 내용 지식의 어려움 양상과 맥락을 확인할 수 있는 질적 자료를 수집했다.

2. 설문 조사

설문 조사는 2024년 11월 중 2개 교육대학교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각 대학의 강의실에서 오프라인 서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 일부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111부의 응답지를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응답자 중, 남학생은 44.1%, 여학생은 55.9%였다. 고등학교 경제 과목 수강자는 14.4%로 적은 편이고, 대학에서 경제학 관련 과목을 한 과목 이상 수강한 비율은 65.8%였다. 경제에 대한 관심은 ‘관심 있음’ 이상이 38.7%였으며, 경제 지식은 주로 뉴스 미디어(46.8%)와 소셜미디어(32.4%)를 통해 얻고 있었다. 금융 투자 경험은 ‘예금 또는 적금’(54.1%)의 비중이 가장 크고, 그 외의 투자 경험이 있는 경우는 34.2%였다. 초등 경제교육

의 중요성에 대해 ‘매우 중요함’ 또는 ‘중요함’으로 응답한 비율은 88.3%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 지식의 중요성에 대해 73.9%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함’으로 답했다. 이에 비추어, 예비교사들이 초등 경제교육 및 경제 지식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조사 대상의 배경 변인

구분	항목	사례 수(명)	백분율(%)
성별	남자	49	44.1
	여자	62	55.9
고등학교 경제 과목 수강	수강하지 않음	95	85.6
	수강함	16	14.4
대학 경제학 과목 수강	수강하지 않음	38	34.2
	1과목	60	54.1
	2과목 이상	13	11.7
경제에 대한 관심	전혀 관심 없음	5	4.5
	관심 없음	26	23.4
	보통	37	33.3
	관심 있음	35	31.5
	매우 관심 있음	8	7.2
경제 지식 습득 경로 (*복수 응답)	TV, 신문 등 뉴스 미디어	52	46.8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소셜 미디어	36	32.4
	경제학 교재 및 경제 관련 도서	11	9.9
	대학 등 교육기관의 강의	6	5.4
	지인이나 전문가의 조언	17	15.3
	기타	1	0.9
금융 투자 경험	없음	13	11.7
	예금 또는 적금	60	54.1
	예금 또는 적금 외 투자 경험	38	34.2
초등 경제교육의 중요성 인식	전혀 중요하지 않음	1	0.9
	중요하지 않음	0	0.0
	보통	12	10.8
	중요함	42	37.8
	매우 중요함	56	50.5
경제 지식의 중요성 인식	알 필요가 없음	1	0.9
	기초적 경제 개념만 알면 됨	6	5.4
	어느 정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함	82	73.9
	전문가 수준으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함	22	19.8

배경 변인을 제외한 설문 조사 문항은 크게 ‘경제이해력’ 조사 문항과 ‘경제 개념 이해 수준’ 조사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전자는 경제 개념에 대한 객관적 이해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고, 후자는 초등 예비교사들이 경제 개념 이해에 대한 주관적 인식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경제이해력’ 조사 문항은 ‘2020년 고등학생 경제이해력’ 조사 문항(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 2020)을 활용하였다. 이는 검사 도구의 난이도와 변별도가 전체적으로 양호하고(노현중, 박상은, 2021), 조사 문항의 내용에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의 경제 영역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들(희소성, 기회비용, 합리적 선택, 시장, 이윤 등)이 포함되어 있어 초등 예비교사의 경제 영역 내용 지식의 객관적 수준을 파악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¹⁾. 조사 문항은 총 25문항이다.

다음으로, ‘경제 개념 이해 수준’ 조사 문항은 연구진이 자체 개발한 것으로, 2015 개정 시기 및 2022 개정 시기의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의 경제 영역 성취기준에 포함되었거나 관련된 내용 요소를 추출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표 2〉 참고)²⁾.

〈표 2〉 사회과 교육과정을 반영한 경제개념 추출

구분	내용요소 및 경제 개념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2015)	희소성, 생산, 소비, 시장, 가게, 기업, 합리적 선택, 자유경쟁, 경제 정의, 경제 성장, 경제 안정, 국가 간 경쟁, 상호 의존성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2022)	자원의 희소성, 경제활동, 합리적 선택, 생산과 소비 활동, 가게와 기업의 역할, 근로자의 권리, 기업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지역 간 교류, 상호의존 관계, 경제 성장의 효과, 경제 성장과 관련된 문제 해결, 무역의 의미, 무역의 이유
본 연구의 ‘경제 개념 이해 수준’ 조사 문항	합리적 선택, (자원의) 희소성, (기회)비용, 편익, 생산, 소비, 재화, 서비스, 합리적 소비, 기업가 정신, 시장 경제 체제, 가게(의 역할), 기업(의 역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근로자의 권리, 시장, 자유, 효율성, 경제성장, 국내총생산(GDP), 지속 가능한 발전, 무역, 비교우위, 수출, 수입, 국제수지

- 1) 선행 연구(김동진, 김지훈, 2021; 한진수, 2002, 2021)에서 활용한 TFL, TEL, OECD/INFE 조사 도구는 공식 번역이 제공되지 않거나 사회과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개념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서 본 연구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2020년 고등학생 경제이해력’ 조사 문항의 경우, 일부 문항에서 추측에 의한 응답 등이 나타나며(노현중, 박상은, 2021),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개념 범위를 넘어서는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추출한 개념을 토대로 주관적 인식 수준을 파악하는 문항 개발하여 활용하였다.
- 2) ‘경제 개념 이해 수준’ 조사 문항에 포함된 일부 개념은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 요소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포함하였다. 예를 들어, ‘기업가 정신’은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 새롭게 추가된 ‘기업의 자유’와 관련하여 초등 예비교사의 이해가 필요한 개념이고(김태환, 김지훈, 2025), ‘지속 가능한 발전’은 경제 성장과 관련된 문제 해결 내용 요소에서 제시될 수 있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추가하였다. 이를 통해 초등 사회과에서 직접 다루는 경제 내용 지식 이해의 기반이 되는 연관 개념에 대한 이해 정도까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설문 조사 문항의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경제이해력’ 조사 문항은 총 25문항으로, 문항당 1점씩 25점을 총점으로 하여 평균 점수와 함께 각 문항별 정답률을 산출하였다. 아울러 집단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각 배경 변인별 집단 수를 고려하여 T-test, ANOVA 분석을 수행하였다. 통계 패키지는 SPSS 30을 사용하였다. ‘경제 개념 이해 수준’ 조사 문항은 총 26문항으로, 문항별 반응은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4점 척도는 ‘의미를 모른다’(1점), ‘의미를 알고 있다’(2점), ‘의미를 알고 설명할 수 있다’(3점), ‘적절한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4점)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척도 구성은 개념 이해의 일정 단계를 전제로 한 것으로, 사회과 내용 지식에 대한 초등 예비교사의 이해 수준을 보다 세분화하여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 결과는 각 문항별 평균 및 표준편차를 계산하여 점수를 산출하였다.

3.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이 연구에서는 설문 조사를 실시한 후, 초등 예비교사가 갖는 사회과 내용 지식 이해의 어려움 양상과 맥락에 대한 질적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를 수행하였다. FGI는 참여자들이 서로의 반응을 들으면서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풍부한 자료를 수집하기에 유용하다(김후자, 김정남, 2001; 신경림, 조명옥, 양진향, 2004). 즉, 소수 응답자 간의 자연스러운 대화 과정에서 다른 응답자의 생각으로부터 새로운 생각을 떠올릴 수 있으며, 개별 면담에 비해 부담 없이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양질의 정보를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신경림 외, 2003). 특히, 예비교사들이 자신이 특정 경제 개념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를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FGI는 다른 사람의 반응을 참고하여 자신의 언어적 표현을 구성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연구 참여자는 설문 조사에 참여한 후 자발적 면접 참여 의사를 밝힌 학생들 중에서, 경제이해력 점수와 다양한 배경 변인을 고려하여 각 대학별로 3명씩 총 6명을 선정하였다(〈표 3〉 참고). FGI 그룹은 경제학 강의 수강 필수 여부를 반영하여, ‘가’ 교육대학교 집단(그룹1)과 ‘나’ 교육대학교 집단(그룹2)로 구분하였다. 그룹1의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교에서 경제학 강의를 수강한 적이 없으며, 경제학 강의 이수가 필수인 그룹2의 연구 참여자들은 3명 모두 1과목 이상의 경제학 강의를 수강하였다.

〈표 3〉 FGI 연구 참여자 특성

구분	연구 참여자	성별	학년	심화전공	기타
그룹1 (‘가’ 교육 대학교)	A	남	3학년	윤리	· 이공계열 학사 학위 소유
	B	여	3학년	윤리	· 이전 대학에서 경제학 1과목 수강
	C	여	3학년	윤리	
그룹2 (‘나’ 교육 대학교)	D	남	4학년	사회	· 고등학교 경제 과목 수강 · 경제학 2과목 수강
	E	여	4학년	사회	· 경제학 2과목 수강
	F	여	3학년	과학	· 경제학 1과목 수강

FGI는 연구 참여자의 일정을 고려하여 2024년 12월 ~ 2025년 2월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그룹별로 각 1회씩 총 2회 실시하였다. 다만, 분석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 면담을 개별적으로 실시하였다. FGI 질문지는 크게 경제 개념 이해의 어려움 양상(개념의 의미 설명, 개념을 이해할 때 어려움을 느끼는 내용 등)과 경제 개념 이해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맥락(개념별로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 경제 관련 교육 및 일상 경험 등), 사회과 일반사회 영역 내용 지식 이해의 어려움과 지원 요구 등에 대한 질문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경제 개념 이해의 어려움 양상의 경우,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초등 예비교사들이 객관적, 주관적으로 어려워하는 경제 개념 중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경제 개념을 선별한 후(희소성, 기회비용, 합리적 선택, 편익, 시장, 가계의 역할, 기업의 역할, 시장 경제 체제, 국내총생산, 국제수지, 비교우위, 기업가 정신, 지속 가능한 발전), 각 개념별 어려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FGI 결과는 모두 녹음한 후, 전사하였다.

FGI 자료 분석은 자료를 통해 귀납적으로 개념적 틀을 만들어 내는 주제분석(thematic analysis)(조영달, 박선운, 2021)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자료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사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어려움의 양상과 맥락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도출하였다. 둘째, 연구진 내의 교차 검토와 협의를 통해 주제에 대한 범주화 과정을 거쳤다. 셋째, 범주화한 자료를 원자료와 반복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분석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분석의 전 과정에서 연구진 내부의 교차 검토를 수행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초등 예비교사가 어려워하는 경제 영역 교과 내용 지식

가. 초등 예비교사의 경제 개념에 대한 객관적 이해도 분석 결과

〈표 4〉 초등 예비교사의 경제이해력 문항별 정답률*

순위**	경제 개념(문항 번호)	정답률(%)
1	희소성(1번)	44.1
2	정부 지출(18번)	47.7
3	경상수지(25번)	48.6
4	비교우위(5번)	55.0
5	합리적 선택(3번)	62.2
6	신용카드(12번)	67.6
7	기업이윤(8번)	72.1
7	이자율(13번)	72.1
9	시장(6번)	73.0
10	외환시장(24번)	74.8
11	경제지표(GDP)(19번)	75.7
12	기회비용(2번)	76.6
13	금융상품(14번)	77.3
14	소비자(11번)	77.5
15	정부 역할(17번)	78.4
16	경제안정화정책(22번)	79.3
17	경제성장(20번)	85.6
18	국제거래(23번)	87.4
19	기업가 정신(9번)	88.3
20	일자리(4번)	89.2
21	소비(10번)	93.7
22	대체재(7번)	94.6
23	전자상거래(15번)	97.3
23	재무관리(16번)	97.3
23	고용지표(21번)	97.3

*음영 표시는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 경제 영역의 교과 내용 지식과 관련 있는 개념임.

**정답률이 낮은 순서대로 배열함.

초등 예비교사의 경제 영역 내용 지식에 대한 객관적 이해도를 파악하기 위해 ‘경제이해력’ 조사를 수행한 결과, 각 문항별 정답률은 〈표 4〉와 같다. 정답률이 가장 낮은 개념은 희소성

(44.1%)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도 정부 지출(47.7%), 경상수지(48.6%)가 절반 이하의 정답률을 보였다. 비교우위(55.0%)와 합리적 선택(62.2%)에 대한 정답률도 전체 26문항 중 하위 4위와 5위로 낮은 편이다. 반면, 소비, 대체재, 전자상거래, 재무관리, 고용지표 등에 대한 문항에서는 90% 이상의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이 연구에서는 25개의 문항 중 상대적으로 낮은 정답률을 보인 문항들 중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과 관련된 개념에 주목했다. 희소성, 경상수지, 비교우위, 합리적 선택이 이에 해당한다³⁾. 이들 개념은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로 제시되어 있어 교사가 알아야 하는 교과 내용 지식에 해당한다. 특히, 희소성과 합리적 선택은 경제 영역의 기초 개념으로서 초등 사회과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개념들이다. 비교우위는 무역의 필요성을 이해할 때, 경상수지는 무역 현황을 파악할 때 필요한 내용 지식이다.

배경 변인에 따른 경제이해력 차이를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⁴⁾. 대학 경제학 과목 수강 여부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수강하지 않은 학생에 비해 수강한 학생의 경제이해력 점수가 소폭 높게 나타났다. 금융 투자 경험에 따른 경제이해력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투자 경험이 있는 초등 예비교사의 경제이해력 점수가 투자 경험이 없는 초등 예비교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예·적금 이외의 투자 경험이 있는 집단의 경제이해력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제교육의 중요성 인식에 따른 차이는 초등학교에서 경제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초등 예비교사의 경제이해력 점수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예비 초등교사의 경제이해력 점수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마지막으로 경제 지식의 중요성 인식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설명 가능’에 응답한 집단의 경제이해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3) 경제학 용어로서의 희소성은 합리적 선택과 연계된 개념으로(김태환, 김지훈, 2024), 희소성은 단순히 양이 적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인적 및 물적 자원의 유한함을 의미한다(이준구, 이창용, 2015; 한진수, 2024). 이는 곧 합리적 선택의 필요성이 되며, 합리적 선택은 비용을 극소화하고, 편익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의미한다. 이때 경제학에서의 합리성(rationality)이란 목적의 합리성이 아니라 수단합리성으로 주어진 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것과 관련된다(이준구, 이창용, 2015). 경상수지는 국제수지의 주요 항목 중 하나로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의 4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상품, 서비스 등의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액을 의미한다(한진수, 2024). 비교우위는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할 때, 다른 국가나 생산자에 비해 어느 국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회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4) 이 연구에서는 초등 예비교사들이 교과 내용 지식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는 맥락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배경 변인을 활용하였다. 이에 배경 변인 중 경향성을 보이지 않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변인(성별, 고등학교 경제 과목 수강, 경제에 대한 관심)에 대한 결과는 기술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표 5〉 배경 변인별 경제이해력 차이

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F	유의수준
대학 경제학 과목 수강	수강하지 않음	38	18.447	2.2625	1.189	.318
	1과목	60	19.500	3.1650		
	2과목	12	19.083	4.7186		
	3과목 이상	1	22.000	0		
금융 투자 경험	투자 경험 없음	13	18.308	3.4493	2.955	.056
	예·적금 경험 있음	60	18.683	3.3063		
	예·적금 이외 투자 경험	38	20.079	2.4204		
초등 경제교육의 중요성 인식	전혀 중요하지 않다	1	5.000	0	8.455	.001***
	중요하지 않다	0	0	0		
	보통이다	12	19.083	3.5792		
	중요하다	42	19.119	3.1016		
	매우 중요하다	56	19.375	2.4163		
경제 지식의 중요성 인식	알 필요 없음	1	20.000	0	2.985	.034*
	기초 개념만 알면 됨	6	17.833	4.7924		
	어느 정도의 이해/설명	82	19.610	2.8142		
	전문가 수준의 이해/설명	22	17.591	3.2464		

나. 초등 예비교사의 경제 개념에 대한 주관적 이해 수준 분석 결과

초등 예비교사의 경제 영역 내용 지식 이해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경제지식 이해 수준’ 조사를 수행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예비교사들이 가장 어렵게 인식한 경제 개념은 ‘국제수지(1.64점)’로 절반 이상이 ‘의미를 모른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기업가 정신(2.47)’, ‘국내총생산(2.50)’, ‘시장 경제 체제(2.52)’, ‘편익(2.70)’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대적으로 가장 어렵지 않게 인식한 개념은 ‘소비(3.52)’, ‘생산(3.50)’, ‘희소성(3.46)’ 등으로 절반 이상의 예비교사들이 ‘적절한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고 답했다. 전반적으로 예비교사들은 국제경제, 거시경제 개념에 대해 더 높은 인지적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표 6〉 초등 예비교사의 경제 개념 이해 수준*

순위	경제 개념	응답률(%)				평균	표준편차
		의미를 모른다	의미를 알고 있다	의미를 알고 설명할 수 있다	적절한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1	국제수지	52.3	36.0	7.2	4.5	1.64	0.807
2	기업가 정신	16.2	39.6	25.2	18.9	2.47	0.98
3	국내총생산(GDP)	9.0	50.5	22.5	18.0	2.50	0.893

4	시장 경제 체제	10.8	41.4	28.8	18.0	2.52	0.942
5	편익	9.0	42.3	14.4	33.3	2.70	1.058
6	근로자의 권리	5.4	37.8	30.6	25.2	2.74	0.931
7	비교우위	7.2	38.7	23.4	30.6	2.77	0.969
8	경제성장	0.9	39.6	36.9	22.5	2.81	0.792
9	기업의 사회적 책임	6.3	34.2	30.6	28.8	2.82	0.926
10	가계(의 역할)	7.2	33.3	27.0	32.4	2.85	0.965
11	시장	1.8	33.3	36.9	27.9	2.91	0.826
12	기업(의 역할)	4.5	31.5	29.7	34.2	2.94	0.917
13	효율성	0.9	34.2	35.1	29.7	2.94	0.823
14	자유	0.9	33.3	31.5	34.2	2.99	0.847
15	(기회)비용	3.6	32.4	23.4	40.5	3.01	0.939
16	지속 가능한 발전	0.9	25.2	30.6	43.2	3.13	0.885
17	무역	0	27.0	28.8	43.2	3.14	0.879
18	합리적 선택	1.8	27.9	15.3	55.0	3.23	0.924
19	합리적 소비	0	21.6	27.9	50.5	3.29	0.802
20	수입	0	18.9	25.2	55.0	3.33	0.846
21	수출	0	19.8	25.2	55.0	3.35	0.794
22	서비스	0	19.8	24.3	55.9	3.36	0.795
23	재화	0.9	19.8	20.7	58.6	3.37	0.83
24	(자원의) 희소성	0	17.1	19.8	63.1	3.46	0.772
25	생산	0	15.3	19.8	64.9	3.50	0.749
26	소비	0	13.5	20.7	65.8	3.52	0.724

* 의미를 모른다(1점), 의미를 알고 있다(2점), 의미를 알고 설명할 수 있다(3점), 적절한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4점)로 측정하여 평균 및 표준편차를 계산하였으며, 평균이 낮은 순서(어렵게 느끼는 순서)대로 배열함.

다. 종합

설문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주로 다루는 경제 영역 내용 지식 중에서 초등 예비교사들이 어렵게 느끼는 경제 개념은 ‘국제수지(경상수지 등)’, ‘합리적 선택(기회비용, 편익 등)’, ‘희소성’, ‘비교우위’, ‘기업가 정신’, ‘국내총생산(GDP)’, ‘시장 경제 체제’ 등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현상은 각 개념에 대한 객관적 이해도와 주관적 이해 수준 평가가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국제수지(경상수지 등)’, ‘편익(합리적 선택 등)’ 관련 개념들은 객관적 이해 수준과 주관적 이해 수준 모두에서 공통으로 낮게 나타났다. 두 개념의 경우 초등 예비교사 스스로 개념의 이해에 대한 자신감이 낮았고, 객관적 이해도 역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희소성’의 경우에는 객관적 이해도는 가장 낮았지만 주관적 이해 수준에서는 높은 자신감을 보였다. 이와 달리, ‘기업가 정신’, ‘국내총생산(GDP)’, ‘시장 경제 체제’의 경우 객관적 이해도는 높게 나타나지만, 스스로는 해당 개념을 잘 모른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비추어,

초등 예비교사들이 사회과 내용 지식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선다형 검사에서 정답을 맞추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즉 사회과 내용 지식 이해의 어려움은 용어의 의미를 알고, 그 의미를 설명할 수 있으며, 적절한 예를 제시할 수 있는 것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복합적인 차원의 문제일 수 있다.

2. 사회과 경제 영역 내용 지식 이해의 어려움 양상

가. 개념의 의미 인지의 어려움

초등 예비교사들이 사회과 내용 지식 이해에 어려움을 드러내는 첫 번째 양상은 개념의 의미 인지 자체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다. 이는 예비교사들이 스스로 그 개념을 알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상태이다. 이러한 양상은 설문 조사에서 주관적 이해도 관련 문항 선택지 중 ‘의미를 모른다’에 해당한다. 이때 예비교사들은 해당 용어의 뜻을 문자적으로 풀이하거나 일상에서 들어본 경험을 떠올리는 정도에 머무르는 모습을 보였다.

설문 조사에서 초등 예비교사들이 ‘의미를 모른다’에 가장 많이 응답한 경제 개념은 ‘국제수지’였다. 응답자의 52.3%가 ‘국제수지’의 개념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객관적 이해도인 경제이해력 조사에서도 ‘국제수지’에 포함되는 경상수지 문항의 정답률이 매우 낮은 수준(48.6%)이었다. FGI 참여자 역시 ‘국제수지’를 쉽지 않은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일부 연구 참여자는 개념의 의미를 모를 때 단어의 일반적인 뜻에 비추어 경제학적 용어의 의미를 짐작하는 모습을 보였다. 예를 들어, B 예비교사는 ‘수지’라는 말을 토대로 ‘국제수지’를 ‘국제적인 이윤’으로 추측하였다. 또는 ‘편익’의 의미를 모른다고 답한 예비교사 중에는 한자어 등 단어를 구성하는 말뜻을 풀이해서 개념의 의미를 추측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F 예비교사는 ‘편익’이라는 문자를 토대로 ‘이익’이라는 의미로 추측했지만, 정확하게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어려워했다.

B 예비교사: 저도 정확하게 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수지라는 말이 ‘이윤?’이라는 말이라면, 그러면은 국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얻은 이윤이 얼마나 그걸 나타내는 것 같아요. 국제적인 이윤.

F 예비교사: 뭔가 단어가 주는 어감에서 이익이라는 거는 조금 알겠는데,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모르겠다는 그런 느낌에서 살짝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초등 예비교사가 교과 내용 지식의 의미를 알지 못할 때 나타나는 또 다른 이해 방식은 경험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초등 예비교사는 일상에서 들어본 정도일 때 자신이 개념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고 여겼다. 예를 들어, E 예비교사는 ‘국제수지’에 대해 “국제수지가 악화된다”와 같이 해당 개념을 들어본 적은 있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지, 개념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못했다.

E 예비교사: 국제수지에 대해서 개념을 설명하지 못하겠고요. 제가 이제 이 말을 어디서 들어봤냐면 어떤 일이 무슨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국제수지가 악화된다. 그때 그런 국제수지라는 말을 들어봤고. 그 국제수지가 어떤 개념인지는 모르겠어서 말을 못 하겠습니다.

나. 개념의 의미 설명의 어려움

초등 예비교사가 교과 내용 지식에 대한 어려움을 드러내는 두 번째 양상은 해당 개념의 의미는 알고 있지만 개념의 의미를 설명하지는 못하는 것이었다. 이는 예비교사들이 개념의 의미를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이다.

경제 영역 내용 지식에 대한 주관적 이해 수준 조사에서 ‘기업가 정신’, ‘국내총생산(GDP)’은 각각 평균 점수 2.47점, 2.50점으로, 예비교사 스스로 해당 개념에 대한 이해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기업가 정신’, ‘국내총생산(GDP)’ 관련 경제이해력 문항은 각각 88.3%, 75.7%의 비교적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는 예비교사들이 해당 개념의 의미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사례를 제시하지 못했을 때 스스로 해당 개념에 대한 온전한 이해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FGI 연구 참여자들 역시 스스로 해당 개념의 의미를 알고 있다고 인식하지만, 그 의미를 설명하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특정 경제 개념의 의미를 이야기해 줄 것을 요청 받았을 때, 자신이 알고는 있지만 말로 설명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예를 들어, C 예비교사는 ‘비교우위’에 대해서 추상적인 수준에서 스스로 이해하고는 있으나, 설명할 정도로 많이 알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C 예비교사: 비교우위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나라가 절대우위에 있어도 비교우위에서 다른 나라의 것을 뭔가 수입을 하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배웠던 것 같은데 이거를 말로 설명할 정도로 제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특히 초등 예비교사들은 경제 개념의 의미를 설명할 때, 교과 내용 지식의 경제학적 의미를 설명하지 못한 채 일상적인 단어의 의미로만 접근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시장’이다. ‘시장’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개념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전통 시장, 마트와 같이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시장의 모습은 자주 접하기 때문에 ‘시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경제 영역에서의 ‘시장’ 개념과 원리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표현했다. 예를 들어, “주변에서 흔히 보니까(B 예비교사)”, “시장을 보면 시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C 예비교사)”라고 말했지만, ‘시장’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경제학적 개념으로서 ‘시장’의 의미가 무엇인지 등과 같이 해당 개념이 내포하고 있는 경제학적 의미를 설명하는 데 주저함을 보였다.

C 예비교사: 느낌은 어떤지 오는데 이걸 말로 설명하기가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시장을 보면 시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시장이 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는 그게 그걸 말로 어떻게 설명하지? 싶었어요.

다. 개념의 사례 제시의 어려움

초등 예비교사들은 개념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을 넘어 그에 적합한 사례를 제시하지 못할 때도 교과 내용 지식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했다. 초등 예비교사에게 교과 내용 지식의 습득은 교수 내용 지식으로의 변환이 전제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즉 자신이 이해하고 그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라도 초등학생 수준에 적합한 사례를 제시하지 못할 때 예비교사들은 해당 교과 내용 지식을 어렵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모습은 FGI 연구 참여자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특정 경제 개념에 대해 자신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응답하면서도, 동시에 그 개념을 초등학생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어떤 사례로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초등 예비교사들이 교과 내용 지식을 단순히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설명 가능성’과 ‘사례 적용’을 포함한 교수 내용 지식으로의 변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드러낸다.

가령, B 예비교사는 학생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적절한 예시 선정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고, 이러한 고민의 과정 때문에 해당 개념이 어렵다고 표현했다. A 예비교사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희소성’을 언급했다. A 예비교사는 ‘희소성’ 개념을 이해하는 것과 설명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은 없지만, 초등학생의 수준에서 희소성을 “적은 것들”이라고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적절한 사례를 선정하기 어려울 때 해당 개념에 대한 어려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D 예비교사의 경우에는

‘무역’의 개념 자체는 의미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만, 일반적인 대학 학습자가 아니라 “예비교사들” 입장에서 “명확한 사례”가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해당 개념에 대한 어려움을 느낀다고 표현했다.

B 예비교사: (중략) 그래서 뭔가 내가 이 내용을 가르칠 때 학생들에게 흥미를 끌기 위해서 어떤 예시를 가져와야 되지? 이게 뭔가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예시가 있을까? 이런 걸 찾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다음에 그냥 숫자나 이런 게 나왔을 때 학생들에게 이걸 어떻게 더 재미있게 전달을 해주지 그런 걸 (고민할 것 같아요).

A 예비교사: 희소성이 있다고 하면 사람이 욕구를 가질 만한 뭔가 있어야 된다는 거를 이해하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그거의 가치를 설명할 때 사실 ‘적은 것들’을 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사례 같은 거를 들면 좋긴한데... 설명이 쉬우려면 쉬울 수도 있는데 ‘이런 사례를 잘 모르면 설명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D 예비교사: (중략) 우리가 딱 무역이라는 걸 들었을 때 얼핏 그림은 그려지는데 명확한 사례 같은 게 예비교사들 입장에서도 바로 떠오르지는 않을 것 같아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3. 사회과 경제 영역 내용 지식 이해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맥락

가. 사회과 맥락: 사회과 내용 지식의 특성

사회과 개념을 학습할 때는 개념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모경환, 차경수, 2021). 개념 간의 위계나 관련 개념과의 관계를 파악해야 지식의 구조를 정확하게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제수지’이다. ‘국제수지’는 일정 기간 동안 한 국가와 다른 국가들이 모든 경제 거래에서 나타난 화폐 흐름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통계이다(이준구, 이창용, 2015). 이러한 ‘국제수지’는 경상수지, 자본수지, 금융계정, 오차 및 누락으로 구성되며(한국은행, 2016),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라는 하위개념을 포괄한다. 이처럼 국제수지는 여러 하위개념을 포괄하기 때문에, 학습자에게 다수의 하위개념은 학습해야 하는 또 다른 개념으로 인식되어 인지적 부담을 준다. 또한 무역, 환율, 국가 간의 경제 관계 등 여러

선행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국제수지에 대한 이해는 단편적인 수준에 머물거나 오개념을 형성할 수도 있다. 가령, D 예비교사는 ‘국제수지’를 이해하기 위해 무역과 같은 국외와의 교류까지 이해해야 하고, “선행개념에 대한 이해가 한 군데서라도 어긋나게 되면” 해당 개념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렵다고 표현했다.

D 예비교사: ‘국제수지’라는 거는 이거를 알기 위해서 우선은 무역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거시경제의 거의 대부분 요소를 다 알아야지 그러니까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와의 교류까지 다 이해해야 ‘국제수지’라는 개념에 도달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교사 차원에서 국제수지라는 한 개념을 배우기 위해서 앞에 선행개념들이 너무 많고 그 선행개념에 대한 이해가 한 군데서라도 어긋나게 되면 국제수지라는 개념을 도출할 수가 없으니까 ‘가장 많이 어려워하지 않냐’라는 생각합니다.

또 사회과의 일부 개념은 인접 개념과의 구분을 통해 효과적으로 학습될 수 있다. ‘국내총생산(GDP)’이 대표적인 사례로, ‘국내총생산(GDP)’은 한 국가 영역에서 일정 기간에 생산한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를 모두 합한 값이다(이준구, 이창용, 2015). 예비교사들은 경제이해력 조사 문항 중 ‘국내총생산’ 관련 문항에서 75.7%의 정답률을 보였지만, 주관적 이해 수준 조사에서 ‘국내총생산’은 평균 2.50점으로 26문항 중 3번째로 어려운 개념으로 느끼고 있었다. 즉, 개념의 의미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자신의 이해도에 대해서는 낮은 자신감을 보였다. FGI 연구 참여자들은 ‘국내총생산’에 대해 어렵다고 느낀 이유에 대해 ‘국내총생산(GDP)’의 인접 개념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국내총생산’ 개념과 함께 배우는 개념으로는 국민총생산(GNP), 국민총소득(GNI) 등이 있다. ‘국내총생산’ 개념도 물가 변동을 반영하느냐에 따라 실질 국내총생산, 명목 국내총생산으로 분류된다. 예비교사들이 주관적으로 ‘국내총생산(GDP)’ 개념을 어렵다고 느낀 것은 이러한 인접 개념이 다수 존재하고, 각 개념이 적용되는 맥락이나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E 예비교사는 경제 개념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연관된 개념 간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언급했다.

E 예비교사: 다른 연관된 개념이랑 차이점을 찾는 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연구자: 연관된 개념들이 몇 개가 있으니까 거기 혼동될 수 있어서요?

E 예비교사: 국민총소득이라든지, 어떨 때는 국민총소득을 쓰는 게 이런 지표를 낼 때 좋고 또 어떨 때는 국내총생산이 더 좋고 이렇게 좀 나눠지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개념을 좀 구분하는 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한편, 초등 예비교사들은 일부 경제 개념의 경우 정치와 같은 사회과의 다른 영역에 대한 이해가 함께 요구되기 때문에 개념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했다. 대표적으로 ‘시장 경제 체제’ 개념이 있다. 초등 예비교사들은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제 영역의 이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정치 영역에 대한 지식도 함께 요구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C 예비교사는 ‘시장’이라는 뜻부터 잘 알지 못하는데 ‘체제’라는 용어가 결합되어 있어 더욱 어렵게 느껴졌다고 언급했다. D 예비교사 역시 ‘시장 경제 체제’를 단순한 경제학 개념이 아닌 사회 전반의 운영과 관련된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C 예비교사: 일단 시장이라는 뜻부터 제가 잘 모르니까, ‘시장 경제가 뭘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체제가 하나 더 붙잖아요. 애는 뭔가 이데올로기나 정치 이런 것과 관련이 될 것 같은데 경제 용어 개념을 두 개에다가 그런 사회 용어 하나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좀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D 예비교사: 왜냐하면 이게 시장이라는 개념은 경제의 개념인데 저는 시장 경제 체제라는 거는 경제와 정치가 조금 연관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경제학 개념이 아니라 이제 이 사회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 사회가 운영되는지에 대한 전반적 개념이 있어야지 이 개념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개념이라고 생각해서 적는 것 같습니다.

나. 학습자 맥락: 형식적·비형식적 학습 경험의 부족

사회과 내용 지식 이해의 어려움은 학습자의 학습 경험의 부족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예비교사들은 해당 개념을 공식적인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을 때 교과 내용 지식 습득에 어려움을 느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객관적 이해도가 높더라도 주관적으로 이해 수준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즉 교육과정에서의 학습 경험 부족은 해당 내용에 대한 이해의 자신감과 관련 있었다.

대표적으로 ‘기업가 정신’은 다른 전통적인 경제 개념에 비해 비교적 최근에 제시된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예비교사들은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해당 개념을 접한 적이 없고, 따라서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설문 조사에서 ‘기업가 정신’은 객관적 이해도는 88.3%의 높은 정답률을 보인 것에 반해, 주관적 이해 수준에서는 어려운 개념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D 예비교사는 다른 경제 개념과 달리 ‘기업가 정신’은 학습의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서 어려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특

히, D 예비교사는 다른 경제 개념에 대해서는 학습 경험이 충분했기 때문에 스스로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기업가 정신’은 “명확하게 이해를 못한 것 같아서 좀 어렵다”고 표현했다.

D 예비교사: 근데 이게 ‘어렵다’ 라고 생각하는 게 뭔가 앞선 경제 개념들은 뭔가 한 번이라도 명확하게 다뤘던 개념인데. (중략) 이런 개념이 명확하게 들어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이해를 못한 것 같아서 좀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넣었던 것 같습니다.

연 구 자: ‘기업가 정신’이 되게 명확하게 다른 개념에 비해 적게 배웠다 이 말씀이신가요?

D 예비교사: 네. 경중이 훨씬 더 뭔가 경제학 내용적인 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배우는 것 같은데 이런 경제의 윤리적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경제학의 이런 사상적 부분 기업가 정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좀 비중이 낮게 배웠던 것 같아서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E 예비교사가 학습 경험이 부족해서 어려웠던 개념은 ‘국제수지’였다. E 예비교사는 ‘국제수지’가 다른 개념들에 비해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언급되는 빈도”가 적었기 때문에 어렵고 낯설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E 예비교사: 일단 다른 경제적 경제 개념들은 뭔가 초등학교 때도 나왔던 것 같고, 다른 제가 느꼈을 때는 좀 이런 언급되는 빈도가 많았던 것 같은데, 국제수지는 그에 비해서 언급되는 빈도도 적었던 것 같고 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적었던 것 같아서 좀 개념 자체도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뭔가 더 낯설게 느껴지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해당 개념에 대한 학습 경험이 부족한 것은 초·중등 교육과정에 한정되지 않는다. 초등 예비교사는 대학 강의 수강 경험과 일상 경험에서 비롯되는 비형식적 학습 경험이 부족했을 때 교과 내용 지식 습득의 어려움을 표현했다. 특히, 이러한 경험의 부족은 해당 영역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저하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먼저, 대학 강의 수강 경험의 부족으로 인한 사회과 내용 지식 습득의 어려움은 설문 조사와 FGI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초등 예비교사는 다양한 교과목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교육대학교에서 사회과뿐만 아니라 여러 교과 강의를 수강한다. 이 연구의 설문 조사 응답자(3-4학년 교육대학교 재학생) 중 34.2%는 대학 경제학 과목을 수강하지 않았고, 54.1%

는 1과목만을 수강했다. 물론, 대학 경제학 과목 수강 여부에 따른 경제이해력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경제학 과목을 1과목 이상 수강한 학생이 수강하지 않은 학생보다 경제이해력 점수가 더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FGI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1그룹과 2그룹의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에서의 경제학 과목 수강 여부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1그룹의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에서 경제학 과목이 필수가 아니지만, 2그룹은 대학에서 경제학 과목을 필수로 수강해야 했다. 1그룹의 연구 참여자들은 경제학 과목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선택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1그룹 참여자들은 모두 교육대학교에서 경제학 과목을 수강한 경험이 없었으며, 이들은 경제를 “재미없고 어렵고(C 예비교사)”, “진입 장벽”이 높은(A 예비교사) 과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C 예비교사: (중략) 그 당시 수강 신청을 할 때 경제보다는 이런 다른 것들을 좀 더 듣고 싶다 하는 마음이 더 커서 그리고 경제를 들을 수 있다 해도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제가 너무 재미없고 어렵고 수학 같고 그런 느낌이 저에게 너무 강해가지고 좀 제 기억으로는 가장 후순위에 밀렸던 선택 과목 중 하나였어요. 저한테는.

A 예비교사: 조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좀 진입 장벽 자체가 높아 보여요.

반면 2그룹의 연구 참여자들은 경제학 과목이 필수였기 때문에 모두 경제학 과목을 수강하였으며, 경제학 과목 수강을 통해 경제에 더욱 흥미가 생겼다고 말했다. ‘경제학 과목을 수강하고 뉴스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F 예비교사)’, ‘경제에 대해 교사로서 자신감이 생겼다(E 예비교사)’고 말했다.

F 예비교사: (중략) 수업 수강하고 나서 경제 뉴스를 보니까 조금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조금 뭔가 설명을 할 때 이해할 수 있는 개념들이 좀 있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배우는 게 좀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고 배웠는데 생각보다 흥미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성적을 받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E 예비교사: 제가 실습을 갔을 때 경제 수업을 한 건 아니었는데 학생들이 경제 관련된 동아리를 해서 그걸 발표하는 걸 본 적이 있었거든요. 생각보다 초등학생들이

경제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그런 부분에서 이 모른다는 걸 이렇게 느껴지게 한다면 학생들이 아무래도 조금 교사를 무시할 수 있으니 저도 어느 정도 이제 경제에 대해서 그때 배웠던 거를 조금 이야기를 하니깐 그런 부분이 좀 덜했던 것 같아서 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편, 비형식적 학습 경험의 부족도 교과 내용 지식 이해의 어려움을 느끼는 맥락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과 내용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일상 경험의 부재는 교과 내용 지식 학습에 대한 흥미 및 관심과 연관되어 있었다. 설문 조사 결과, 111명의 응답자 중 73명은 예금과 적금 외의 투자 경험이 없었으며, 투자 경험이 없거나 예적금 경험이 있는 집단에 비해 예금과 적금 외 투자 경험이 있는 집단의 경제이해력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FGI 연구 참여자들 역시 투자 경험이 경제 개념 습득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투자 경험이 풍부했던 D 예비교사는 “지식의 적용” 측면에서 투자를 하면서 보다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었다고 표현했다. 반면, C 예비교사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 예금 경험 이후에는 금융 상품에 대한 경험이 없었다. 이러한 일상에서의 경험 부족으로 인해 C 예비교사는 경제 지식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없었다고 말했다.

D 예비교사: 그냥 명확하게는 이제 미국의 연준에서 금리 결정하는 걸 보면서 이 금리가 이렇게 결정되어서 딱 우리나라에 경제에 이렇게 적용되는구나라는 그런 지식의 적용 부분에서는 확실히 명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C 예비교사: (중략) 사회생활을 안 하고 경제생활도 안 하고 돈도 안 벌고, 그다음에 기업 이게 너무 거시적인 관점, 기업, 무역, 이런 거 너무 거시적인 관점들만 다루다 보니까 그냥 개념 외우고 적용하고 그냥 그렇구나 신기하네 정도 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V. 결론 및 논의

교사의 교육과정 전문성 담론에서 교육과정 문해력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교사 지식 중 교과 내용 지식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요청된다. 특히 초등교원 양성과정이 예비교사들이 교과 내용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시기라는 점에서 예비교사들이 사회

과 내용 지식에 대해 어떤 어려움을 갖고 그 어려움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초등 예비교사가 사회과 내용 지식을 이해할 때 경험하는 어려움의 양상과 그 맥락을 분석함으로써 초등교사 양성과정에서 사회과 교육과정 문해력 함양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초등 예비교사들이 경제 영역의 내용 지식에 어려움을 갖는다는 연구 결과에 비추어, 경제 개념에 초점을 두었다.

설문 조사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병행한 혼합 연구를 수행한 결과, 초등 예비교사들은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과 관련된 개념 중, 국제수지(경상수지 등), 합리적 선택(기회비용, 편익 등), 희소성, 비교우위, 기업가 정신, 국내총생산(GDP), 시장 경제 체제를 이해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교사들이 보여준 어려움의 양상은 ‘개념의 의미 인지의 어려움’, ‘개념의 의미 설명의 어려움’, ‘개념의 사례 제시의 어려움’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개념의 의미 인지의 어려움’은 개념을 알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 상태의 예비교사는 해당 개념의 의미를 문자적으로 풀이하거나 일상에서 들어본 경험을 떠올리는 모습을 보였다. ‘개념의 의미 설명의 어려움’은 예비교사 스스로 개념의 의미는 알고 있다고 인식하지만, 개념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예비교사는 경제학적 의미를 설명하지 못한 채 일상적인 단어의 의미로만 접근하는 모습을 보였고, ‘시장’ 개념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런데 이는 알고 있는 것을 단지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용 지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아니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즉, 예비교사의 경제 개념 이해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이해도가 배치되는 현상은 향후 사회과 개념에 대해 예비교사들이 오개념을 형성하는 양상과 그 원인을 파악하는데 중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념의 사례 제시의 어려움’은 개념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을 넘어 적합한 사례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서 느끼는 어려움의 상태를 의미한다. 예비교사들은 자신이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초등학교 수준에서 적합한 사례를 제시하지 못할 때 해당 교과 내용 지식을 어렵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교과 내용 지식 이해의 어려움은 교과 맥락과 학습자 맥락에서 비롯된다. 사회과 맥락에서는 개념 간의 유기적이고 복잡한 관계가 인지적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학습자 맥락에서는 초·중등학교 및 대학 교육과정의 충분한 학습 기회 부족이나 경제 개념과 직접 연결되는 일상 경험이 부족할 때 내용 지식의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드러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과 교육과정 문해력 함양 과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과 내용 지식에 대한 이해는 교수 내용 지식 변환과의 연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연구 결과, 초등 예비교사들이 경제 개념의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의미를 알지 못하거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다양한 어려움 양상을 보였다. 특히 예비교사들이 초등학생 수준에서 사례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교과 내용 지식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비교사로서의 정체성을 반영하여 교과 내용 지식의 학습이 교수 내용 지식으로의 변환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과 내용 지식의 학습은 단순히 내용 지식의 이해 차원을 넘어 일상생활 속의 적용 과정을 동반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교과 내용 지식에 대한 이해가 인지적 차원을 넘어 정서적 차원에서의 동기 부여가 필요함을 시사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는 초등 예비교사들의 경제학 수강 여부와 금융 상품 투자 경험 등이 흥미, 관심, 자신감 등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 지식에 대한 학습 및 일상 경험은 개념 이해에 대한 자신감을 줄 수 있고, 자신감은 해당 교과에 대한 관심과 흥미로 이어지면서 일상생활 속에서의 개념 적용까지 나아갈 수 있다. 결국, 교과 내용 지식에 대한 이해가 교육과정, 교과서 차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학 학습자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의 경험이 함께 동반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는 한진수(2002)의 연구에서 일상생활 속 경제 기사를 읽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높은 경제이해력 점수를 보인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경제에 대한 단순한 흥미를 넘어서 교과 내용 지식 이해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유의미한 학습 경험이 필수적이다. 예비교사 정체성 뿐 아니라 대학 학습자로서의 정체성을 반영한 일상생활과 연계된 학습 경험을 통해 교과 내용 지식에 대한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사회과 내용 지식 학습 과정에서 교육과정에 제시된 주요 개념을 중심으로 관련 개념 간 관계를 계열화하는 학습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사회과의 주요 개념들은 상호 연관되어 상위개념, 동위개념, 하위개념의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예비교사들은 이러한 개념 간의 관계와 차이를 인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념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계열화하고 이를 시각화함으로써 예비교사들이 스스로 개념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학습 경험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개념도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 개념도는 교과 내용에서 선정한 중심 개념들을 시각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개념 간의 관계와 의미를 구조화하는데 효과적인 학습 도구로 알려져 있다(이향아, 1999). 사회과에서 주요 개념들을 선별하고, 예비교사들이 개념 간의 관계를 스스로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습 경험은 개념 간의 차이와 연관성을 보다 명확히 인지하고 교과 내용 지식을 효과적으로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교과 내용 지식을 주로 다루고 있는 강좌를 중심으로 교육과정 및 교수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예비교사의 경우 교육실습 및 일부 강좌에서의 모의 수업 등을 제외하고 교과 내용

지식을 교수 내용 지식으로 변환할 수 있는 학습 경험이 제한적이다. 이 연구에서 88.3%의 예비교사는 대학 경제학 과목을 수강하지 않거나(34.2%), 단 1과목만을 수강했다(54.1%). 또한 인터뷰에 참여한 '가' 교육대학교 예비교사들 모두 교육대학교에서 대학 경제학 과목을 수강한 경험이 없었다. 따라서 정규 교육과정의 교양 및 심화전공에서 경제교육을 포함한 사회과 관련 과목을 현실 경제와 연계하여 다양한 방향으로 확대 개설하는 방법을 통해 내용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규 교육과정 외에도 비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형식 교육 뿐 아니라 다양한 비형식 교육 경험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가령, 일반사회 영역의 특정 주제에 대한 수업 사례 공모전이나 특정 주제에 대한 마이크로디그리(MD) 과정의 개설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 보았을 때 초등 예비교사의 교육과정 문해력 함양을 위한 교과 내용 지식 학습 경험의 제공에는 초등 예비교사라는 정체성과 고등교육 학습자라는 이중의 정체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는 고등교육 학습자 정체성만을 강조하여 모학문의 내용 지식만을 가르치는 것과 예비교사 정체성만을 강조하여 초등학교 교육과정 수준만을 강조하는 것을 벗어나 양자에 대한 조화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초등 예비교사 스스로 어렵다고 여기는 사회과 내용 지식을 예비교사 시기에 충분히 습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교수 내용 지식을 획득하는 기초가 되며 초등 교과교육 전문가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데에 있어서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과 내용 지식에 대한 초등 예비교사의 어려움을 경제 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교사 전문성의 핵심을 차지하는 교수 내용 지식으로의 변환의 원천에는 교과 내용 지식이 있다. 초등교원 양성과정에서 교과 내용 지식을 다룰 때, 개별학문 원론 중심의 교수설계에서 나아가 예비교사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맞춤형 교수설계에 이 연구의 결과가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논문 투고일: 2025. 5. 30. ※ 논문 수정일: 2025. 7. 28. ※ 게재 확정일: 2025. 8. 13.

〈참고문헌〉

- 강대현(2008). 사회과 지식교수 PCK 분석 연구- 개념과 일반화 교수 PCK를 중심으로. **시민교육 연구**, 40(2), 1-30.
- 강대현(2021). **사회과교육론 - 시민교육의 이상과 현실** -. 서울: 동문사.
- 교육부(2015).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8-74호 [별책 7].
- 교육부(2022).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7].
-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2020). **2020 초·중·고 학생 경제이해력 조사**. 세종: 한국개발연구원.
- 김동진, 김지훈(2021). 초등교사의 금융이해력 조사 연구. **경제교육연구**, 28(3), 119-144.
- 김병수, 이현명(2016). 예비교사와 경력교사의 교육과정 문해력 수준 비교에 대한 사례 연구 - 국어교과를 중심으로 -. **교육연구**, 67, 117-144.
- 김태환, 김지훈(2025).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가계와 기업의 역할 분석. **사회과수업연구**, 13(1), 93-114.
- 김후자, 김정남(2001). 질적 연구로서의 포커스그룹 연구방법(Focus group method)에 대한 고찰. **계명간호과학**, 5(1), 1-21.
- 노현중, 박상은(2021). 문항반응이론을 적용한 초·중·고등학생 경제이해력 조사 연구 문항 양호도 및 추측에 따른 응답 특성 분석. **경제교육연구**, 28(3), 29-57.
- 모경환, 차경수(2021). **사회과교육**. 서울: 동문사.
- 박상준(2018). **사회과교육의 이해**. 경기: 교육과학사.
- 박운경, 김미혜, 김병수(2017). 교육과정 문해력의 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 **교육연구논총**, 38(4), 27-50.
- 박운경, 김미혜, 장지은(2018). 교사학습공동체를 위한 교육과정 문해력 프로토콜의 개발 및 적용 가능성 탐색. **교육문화연구**, 24(5), 31-56.
- 박운경, 김미혜, 장지은(2021). **교육과정 문해력 프로토콜**. 서울: 교육공동체넷.
- 박운경, 김미혜, 장지은, 김동원(2017). 초등학교 교육과정 재구성 우수 사례 교사가 갖는 교육과정 문해력의 특성 연구. **학교와 수업 연구**, 2(2), 1-19.
- 박운경, 김재근, 김지훈, 유소현, 이주영(2024). 사회 교과서 집필 과정에서 나타난 초등교사의 교육과정 문해력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학교와 수업 연구**, 9(2), 1-29.
- 설규주(2009). 초등 사회과 수업에 나타난 내용교수지식(PCK) 분석 연구 - 초임교사와 경력교사 사례를 중심으로 -. **사회과교육**, 48(2), 29-51.
- 설규주(2010). 초등 예비교사와 초임교사의 사회과 수업 관련 경험 및 인식에 대한 조사 연구. **사회과교육**, 49(2), 53-71.
- 신경림, 장연집, 조영달, 김남선(2003). **질적연구 용어사전**. 서울: 현문사.
- 신경림, 조명옥, 양진향(2004). **질적 연구 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윤상균(2013). 경제개념학습에 유용한 사례 연구. **사회과수업연구**, 1(2), 85-101.
- 이경한, 김서윤(2019). 예비교사의 사회과 과제분석 결과와 오류 분석: 중심지 개념을 중심으로. **교육종합연구**, 17(4), 197-220.
- 이윤희(2018). 대학생의 금융이해력에서의 과신. **시민교육연구**, 50(2), 137-157.
- 이준구, 이창용(2015). **경제학 원론(제5판)**. 경기: 문우사.
- 이향아(1999). 개념도를 활용한 역사 오개념 분석-초등학교 4학년 '변화' 개념을 중심으로.

사회과교육연구, 6, 183-209.

- 정광순(2020). 초등교사의 교육과정 문해력 내용 탐색. **통합교육과정연구**, 14(4), 27-52.
- 조대훈(2015). 사회과 PCK 연구 동향 및 연구 담론 분석. **시민교육연구**, 47(2), 115-143.
- 조영달, 박선운(2021). 문화적 민감성을 높인 질적 연구의 이론과 실제. 경기: 교육과학사.
- 최희정(2012). 중등 사회과 교사의 PCK 형성에 관한 근거이론적 분석. **중등교육연구**, 60(2), 467-494.
- 한광웅(2012). 교수내용지식의 메타적 이해를 통한 사회과교사의 정체성 탐색. **사회과교육**, 51(4), 63-76.
- 한국은행(2016). **우리나라 국제수지통계의 이해**. 서울: 한국은행.
- 한진수(2002). 한국의 초등교사는 경제 지식을 충분히 지니고 있는가?. **교육논총**, 19, 1-28.
- 한진수(2021). 예비 초등교사는 개인 금융을 잘 아는가? 경인교대생의 경우.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 교육논총**, 41(1), 89-107.
- 한진수(2024). **경제학의 개념어들**. 서울: 사람in.
- Creswell, J. W. (2017). **연구방법 : 질적·양적 및 혼합적 연구의 설계**. [Research Design: Qualitative, Quantitative, and Mixed Methods] 정종진, 김영숙, 성용구, 성장환, 류성림, 박판우, 유승희, 임남숙, 임청환, 허재복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저출판년도 2014)
- Johnson, R. B., & Onwuegbuzie, A. J. (2004). Mixed methods research: A research paradigm whose time has come. *Educational researcher*, 33(7), 14-26.
- Shulman, L. S. (1986). Those who understand: Knowledge growth in teaching. *Educational Researcher*, 15(2), 4-14.
- Shulman, L. S. (1987). Knowledge and teaching: Foundations of the new reform. *Harvard Educational Review*, 57(1), 1-23.

〈Abstract〉

Analysis of Pre-Service Elementary School Teachers' Difficulties with Social Studies Content Knowledge: A Focus on Economic Concepts

Park, Yun-Kyoung¹, Kim, Jaegeun², Kim, Jihun³, Sim, SoHyun⁴

This study's aim was to analyze the difficulties faced by pre-service elementary teachers in understanding economic content knowledge in the context of social studies and to suggest ways to enhance social studies curriculum literacy. To achieve this, a convergent parallel mixed-methods approach was employed, involving surveys and focus group interview (FGI). The findings revealed that the main economic concepts that pre-service teachers found difficult included balance of payments, rational choice, scarcity, comparative advantage, entrepreneurship, GDP, and the market economy system. The patterns of these difficulties experienced by pre-service elementary teachers were categorized into three types: (1) difficulty in recognizing the meaning of a concept, (2) difficulty in explaining the meaning of a concept, and (3) difficulty in providing examples related to the concept. The contexts of these difficulties were analyzed in two dimensions: the characteristic of social studies knowledge (social studies context), and the lack of formal and informal learning experiences (learner context).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suggests several implications for improving social studies curriculum literacy in teacher education: strengthening content knowledge learning, fostering confidence through connections to everyday experiences, providing sequenced experiences of social studies concepts, and considering the dual identity of pre-service teachers as both teachers and higher education learners.

Keywords : social studies content knowledge, economic concepts, curriculum literacy, pre-service elementary teachers, difficulties in understanding content knowledge, mixed methods research

-
1. Professor, Che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realpyk1@cje.ac.kr (Lead Author)
 2. Assistant professor, Daeg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jaegeun@dnue.ac.kr (Co-Author)
 3. Teacher, Daejeon Euneosong Elementary School, kjh4469@snu.ac.kr (Corresponding Author)
 4. Teacher, Changdong Middle School, hongryun91@snu.ac.kr (Co-Author)